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하는 엘리사

람베르트 야콥스

(Lambert Jacobsz, 1598~1636)

1628-33, 캔버스에 유채, 112x162.6cm

라이덴 컬렉션, 미국 뉴욕

입당송 |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 2열왕 5,14-17

화답송 | 시편 98(97),1,2-3ㄱ,3ㄷ-4(◎ 2 참조)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
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
러라. ◎

제2독서 | 2티모 2,8-13

복음환호송 | 1테살 5,18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
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복음 | 루카 17,11-19

영성체송 |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루카 17,19)



전두병 요아킴 신부 | 여의도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오늘 제1독서는 나아만과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앓는 아람의 장수였는데,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스라엘 출신 하녀를 통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라고 하자, 그는 너무 단순한 치료 방법에 분개합니다. 그렇지만 부하의 설득으로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강물에 몸을 담갔고, 나병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오직 주님께만 제사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한 사람 끼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처절하면서도 절실하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제에게 가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치유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기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서는 한탄하십니다. 결국,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하느님

께서 베풀어주신 은총과 자비에 대한 '감사'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청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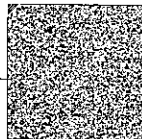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사할 일이 무엇이나고 되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순간을 살게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에, 특히 당신을 알고 하느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느님의 전능에 승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내가 받은 호의에 대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걸맞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어떤 이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일상생활을 곰곰이 성찰한다면, 주님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시리아 사람 나아만

나병에서 치유된 나아만은 엘리사를 다시 찾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하고자 합니다. 화가는 두 주인공의 얼굴 표정을 세심하게 그립니다. 엘리사는 성경에 손을 얹고, 나아만이 자신이 아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특히 화가는 선물을 거절한 '하느님의 사람'의 뜻을 살피는 나아만의 눈빛을 묘사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음"을 나아만이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유경태 안토니오 | 군중병 복무

저는 공군에서 21개월 동안 군중병으로 복무했던 유경태 안토니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군중병으로 복무하며 경험했던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군중병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또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군중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당을 찾는 장병들이 신앙 안에서 작은 위로와 쉼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제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순간은 올림도의 한 작은 부대를 방문해 미사를 봉헌했던 때입니다. 그곳에는 성당도 없고, 상주하는 신부님도 계시지 않아 주일 미사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군인들이 계셨기에, 신부님과 저는 배를 타고 왕복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올림도로 향했습니다. 군부대의 작은 강당 한편에 제대를 마련하고, 탁구대를 접어 고해소를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미사에는 10명 남짓한 장병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그 어떤 미사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느님을 향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체를 모신 뒤, 한 친구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모습입니다. 그 눈물은 힘든 군 생활 속에서도 하느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군중병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

셨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체를 모시고 눈물을 흘렸던 그 친구의 모습에서 오늘의 복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눈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느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같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특별한 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그저 작은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중병으로 보낸 21개월의 시간은 저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장병들의 신앙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더 큰 깨달음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은총이었습니다.

군인 주일을 맞아, 이 땅의 모든 군인과 군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군중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도 군 생활을 통해 얻은 은총과 감사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한컷 묵상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루카 17, 19)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한 시인의 희망 찬가



김영선 루시아 수녀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살아온 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희망을 포기할 이
유가 쌓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 삶의 방향타와 같
아서 희망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표류하기 쉽
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향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까요? 희망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희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대신덕에 속합니다. 덕(德)
이란 노력과 수양으로 쌓아 올린 도덕적 품성을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어진 희망의
덕은 희망을 향한 우리의 계속된 선택과 태도를 통해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편을 통해 희망을 키워가는 법을 배
워보고자 합니다. 시편 62편의 저자는 희망의 근거가 무
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구원과 희망을 동일시하며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선언합니다.(2,6절 참
조) 그래서 그는 스스로 다짐합니다. 하느님을 향해 말없
이 기다리리라.(2,6절 참조) 왜냐하면 하느님만이 그의 바
위, 구원, 성체이시기 때문입니다.(3,7절 참조) 하느님이 바
위와 성체이시라는 고백은 그분이 유일하게 그에게 안
전과 안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시편 시인이 이토록 간절하게 하느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가 기우는 벽, 넘어지는 담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무너뜨리
려 합니다. 거짓과 감언이설로 그를 높은 곳에서 떨어
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구하고자 다른 힘
있는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
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한낱 숨결일 따름, 그저 왔

다가 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
도 의지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 또한 있다가도 없어지
는 유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의 도움과 영광이 하느님께 있고, 그가 의지할 견고
한 바위와 그가 숨을 피신처가 하느님 안에 있다고 고
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에게도
권고합니다. 늘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마음
을 쏟아 놓으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
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깨우친 깨달음을 두 가지
로 요약해 줍니다.(12~13절 참조) 하나는 참된 힘은 하느님
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힘들은 이
힘에 비하면 모두 찰나적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
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힘은 이
힘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는 또한 자애(혜세드)가 있습
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처지를 모른 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분은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
로 하느님을 기다린다는 것, 하느님께 희망을 둔다는
것은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실 하느님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의 노고와
선행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비방한다 하더라도 주
춤거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우리는 이 희망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할 인생의 방향타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법 (삼위일체론)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언어를 익힐 때 문법을 배우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문법은 단어를 가지런히 묶어 그 뜻을 더 분명하게 하고, 정확한 소통을 도와주니까요. 문법이란 말은 언어 공부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흔히 비유적으로 시대에 따라 ‘사회적 문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공감의 중요해진 오늘날에는 ‘감정의 문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전문가들의 문법도 있습니다. 영화감독은 시점·편집·대사·촬영 기법을 엮어 영화의 문법을 만들고, 건축가는 생각과 공간 배치, 재료 선택을 통해 자신만의 문법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일하는 모든 방식 속에는 문법처럼 보이지 않는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문법은 무엇일까요? 신학자 칼 라너의 창조신학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창조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을 통해 그분의 문법을 읽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그 모든 순간에는 사랑의 방식이 함께했지요. 창조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언어의 ‘메시지’에 해당한다면, 사랑으로 일하신 규칙은 드러나지 않은 ‘문법’인 셈입니다. 창조는 사랑이라는 문법으로 쓰인 거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문법’은 삼위일체 안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을 이어주는 관계의 끈이 바로 사랑이지요. 성부께서는 사랑을 내어 주시고, 성자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 스스로를 내어 주시며,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잇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서로에게 군림하거나 분쟁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연결되는 문법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문법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모습대로 지으셨고, (창세 1,26 참조) 그 안에 삼위일체의 문법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도 사랑이어야 하겠지요.

문법은 책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사랑의 문법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살아가도록 이끌며, 그 길을 가꾸고 실현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사랑의 언어는 공동체 안의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담아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던 문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난 하느님의 문법은 교회와 세상 한 가운데에서 더욱 뚜렷하게 복음의 문장으로 새겨지고, 그 문장은 다른 이들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이 문법이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 AI에 대해 말하다! 제1회 WYD 슈퍼클래스 열려

2025년 9월 6일(토)



우리 교구는 WYD(세계청년대회) 준비의 일환으로 WYD 슈퍼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연 시리즈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WYD)까지 홀수 달마다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학, 철학, 문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각자의 진리 탐구 여정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청중을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9월 6일에 진행된 강연은 이 WYD

슈퍼클래스의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명동대성당 게스트홀에서 열린 이번 강연에 연사로 나선 분은 가톨릭대학교 윤리신학 교수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이셨는데, “기술 앞에 선 신앙인-AI시대, 그리스도인의 감수성”이라는 주제로 AI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은 괴테의 시 “마법사의 제자”를 바탕으로 AI의 위험과 AI윤리의 필요성, 교회의 가르침, 신앙인의 자세를 풀어내며 “인간다운 사용을 위한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AI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으나, 편리함 속에서 성찰 없이 의존할 때, 인간은 쉽게 종속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인공지능(AI) 윤리에 관한 로마의 호소>와 <옛것과 새것> 등을 통해 인간 존엄을 지키는 기술 사용을 고민해 왔

다는 점’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종우 신부님께서는 인간의 지능이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니라, 신체적·정서적·사회적·영적 차원을 포괄하는 삶 전체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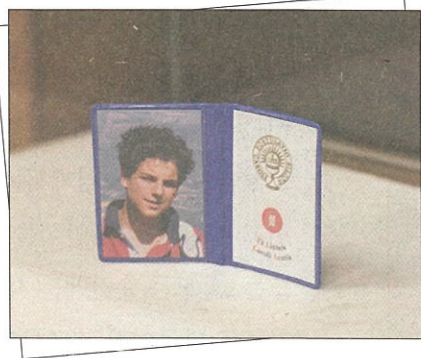
이어서 신부님께서는 “기계는 하느님이 선사하신 인간 창의성의 선물이지만 ‘피조물의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창조주의 피조물’인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연 후 청년들은 퀴즈와 질의 응답을 통해 AI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연에 참석한 청년들은 다양하고 많은 질문을 던지는 등 이번 강의 주제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AI 문제에 대한 이 시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는 후문입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유해, 명동에 안치

2025년 9월 17일(수)

지난 9월 17일,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유해(머리카락 일부)가 2027 서울 WYD 지역 조직위원회(명동대성당 영성센터) 경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총대리 구요비 욥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된 이날 미사에는 2027 서울 WYD 봉사자들이 함께하며, 우리 시대의 성인께 전구를 청했습니다. 구 주교님께서는 강론에서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을 소개하시며, “슬픔이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행복이란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성인의 말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인께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삶을 걸작으로 만드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목주기도 10억단 바치기

목주기도 봉헌 운동
597일째
[2024-02-11부터]

실시간 봉헌 현황
236,634,829단
[달성률 23.66%]

자세한 내용은



평범함 안에 숨은 특별함 발견하기



도서 《유일한, 평범》

교회의 전례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시기는 연중 시기로 전례력 안에서 총 34주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연중 시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요하거나 특별한 전례 시기에 속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신비의 어떤 특수한 측면을 준수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에 시선을 두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특성을 지닌 연중 시기를 저는 ‘평범함에 집중하되, 그 평범함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기’로 여깁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개인의 일상과 눈에 띄는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 세상사의 흐름, 그 안에서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 우리에게 연중 시기는 한 해의 전례력 안에서 가장 긴 시간을 무미건조하게 차지해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평범함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집중하는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에 깊이 집중하는 시기로 연중 시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연중 시기는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 우리네 일상 안에서 미세하게 변화되는 지점들을 포착해 내는 섬세함을 제공합니다. 또 변화의 폭이 느껴지지 않는 세상사의 흐름을 이전보다 더 긴 흐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갖추도록 이끍니다. 이처럼 연중 시기는 우리네 평범함 안에 숨어있는 특별함을 깨우쳐 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의 에세이 《유일한, 평범》을 읽으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며 연중 시기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미지근한 나의 삶에, 그 안에서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베통대는 나에게, 애정을 주고, 인정을 주고 싶다. 이 모습도 만족스럽다고. 그런 마음을 발아래 디디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발걸음을 내딛는 슬로모션이 여기 담겼다.”는 프롤로그 속 작가의 포부가 평범한 삶 속에서 유일함과 특별함을 발견해 내기 위한 의지를 사치처럼 여기기 쉬운 독자들의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이어서 작가의 ‘평범해 보이지만 유일하고 특별했던 일상’ 속 여러 경험과 체험, 밀려온 감정과 떠오른 생각 등으로 꾸러진 이야기들은 서로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함, 다르지 않아 보이는 개개인의 평범함 속에 담긴 미세한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섬세함 등을 공유합니다. 이처럼 작가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으로부터 번지는 유일무이한 특별함은, 각자의 삶의 영역을 가꾸어 나가는 모든 범인(凡人) 독자들의 마음을 특별함으로 인도합니다.

《유일한, 평범》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네 존재를 감싼 평범함에 특별함을 부여할 수 있는 너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더불어 평범하게만 보이던 세상사의 흐름 속에 내재된 유일무이한 특별함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타자의 평범함 안에 감추어진 특별함을 발견해 낼 줄 아는 마음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흘러 보내고 있을 연중 시기를 향한 마음을 특별하게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묵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10월 12일)은 '군인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58회 군인 주일입니다. 군인들을 사모하고 계시는 군중 신부님들의 노고와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방위에 온 힘을 다하는 일선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8회 군인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0월 19일 전덕표 안드레아 신부(29세)
- 1986년 10월 18일 김진하 요한 신부(62세)
- 2001년 10월 14일 박성춘 레오 신부(86세)
- 2001년 10월 19일 김운상 베네딕토 신부(79세)
- 2011년 10월 19일 김자문 네레오 신부(63세)
- 2020년 10월 14일 임태경 루카 신부(85세)
- 2020년 10월 19일 김창만 안드레아 신부(88세)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 알림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2026년 1월 12일~23일(1박12일)
지도: 김성민 신부 / 주관: 성서못자리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테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행사 안내

1) '슬픔 속 희망찾기' 10월 유가족 월례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때, 곳: 10월 18일(토) 10시(자비의 기도) ·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2) 2025년 4대 중단과 함께하는 열린포럼
대상: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
주제: 중년 자살예방
때, 곳: 10월 23일(목) 14시~16시, 청년문화공간 JU
문의(신청): 02)318-3079(3079@3079.or.kr)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심리강좌(윤제연 교수), 이탈리아어(류재만), 해금(정겨운)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 · 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순교자현양신심 미사 및 순교자현양 아카데미

1) 순교자현양 신심 미사(352회)
때, 곳: 10월 14일(화) 오전 10시, 절두산순교성지
2) 순교자현양 아카데미
대상: 순교자현양회 활동중인 봉사자 및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사전접수) / 문의: 0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때, 곳: 10월 25일(토) 15시~19시, 절두산성지 교육관

오후 3시 미사 (절두산 성당)	원종현 신부(순교자현양회 담당사제)
특강 1. (교육관)	이태영 교수(전주교구 순교자현양원)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와 바우베기
특강 2. (교육관)	정민 교수(한양대학교 국문과) 신유박해기 서울의 교회 공동체

2026 신구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2026 스페인 샌티아고 도보순례 파장: 9월 3일~17일(파장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제79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10월 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11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프로그램 안내

1) 죽음교육, '맞닥뜨리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
대상: 생명의 문화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심 있는 분 / 회비: 4만원
때: 11월 4일~25일 매주(화) 20시~22시(총 4주)
곳: 생명위원회 5층 교육실 / 문의(신청): 02)727-2351
2)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중년 신자를 위한, '해들넛 피정'
대상: 중년기 의미를 찾고자 하는 40세 이상의 신자
때: 11월 22일(토) 9시~17시
곳: 전교가르멜 피정의 집(사직동)
회비: 2만원 / 문의(신청): 02)727-2354
자세한 사항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2025 평신도 역량 강화를 위한 영성 강의

때: 10월 21일~11월 11일 오후 7시30분~9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 회비 없음

1강	10월 21일(화) 가르멜 영성 / 강사: 윤주현 신부
2강	10월 28일(화) 골롬반 영성 / 강사: 양창우 신부
3강	11월 4일(화) 살레시안 영성 / 강사: 양승국 신부
4강	11월 11일(화) 도미니칸 영성 / 강사: 김상태 신부

신청: 서울평단협 홈페이지(www.clas.or.kr) 공지사항 참고 /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무국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동천 서예전: 1, 2전시실
한남 비잔틴 이콘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 17일(금)~26일(주일)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10월 모임

접수: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강사: 이수산나 수녀
대상: 35세 이하 남녀 젊은이(회비 없음)
주제: 희망을 만난 성경 인물-예레미야
때, 곳: 10월 21일 셋째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문의: 02)727-2031 박스테파니아 수녀

2027 서울 WYD 행사 안내

1) 2027 서울 WYD 주제가 공모
내용: 2027 서울 WYD의 의미와 주제 "용기를 내 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를 담은 창작곡(작사+작곡) / 11월 30일(주일)까지 접수
2) 2027 서울 WYD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합창단: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오케스트라: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국악기
3) WYD 청년 리더십 연수
때: 11월 8일(토) 14시~19시30분
곳: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 위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eoul.org) 참조
문의: 02)2230-2023, 2027 / 2027 서울 WYD 조직위

민족화해위원회

1) 제10회 2025 한반도평화나눔포럼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내용: 평화의 장인과 가톨릭 공동체
때, 곳: 11월 14일(금) 오전 10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코스트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harepeace.net) 참조
2) 2025 평화의 바람 기행(4기) 참가자 모집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접경지역을 걸으며, 함께 기도해요!
대상: 도보순례 가능한 누구나 40명(신청, 입금순)
때: 11월 21일(금)~22일(토) 1박 2일 / 회비: 7만원
곳: 임진강생태길, 북한군묘지, 유엔군화장장시설, 민족화해센터 / 문의: 02)753-0815
신청방법: 문자신청(010-4682-2412 링크발송)
3) 1484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0월 1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넛분당': 평양교구 기림리 분당
문의: 02)727-2420

인준 단체 알림

모임

글라렙트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성지순례

때, 곳: 10월 20일(월) 7시, 배운성지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10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10월 23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예수 전교회 치유 대피정

때: 10월 18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강사: 김완식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ICPE 오마이갓 오마이바디 피정

대상: 가톨릭 청장년 누구나
때, 곳: 11월 14일~16일, 마리스타(합정)
문의(접수): 010-5320-0419 / 카카오톡 플친: ICPE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 / 문의: 02)3276-7794

때, 곳: 12월 26일(금)~2026년 1월 4일(주일)·1월 8일(목)~17일(토)·1월 23일(금)~2월 1일(주일), 예수마음 배움터 / 주최: 예수회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여주 예수마음선교수녀회(여주 신단2길 109-13)
문의(접수): 031)885-5015, 010-6471-6932 / 권민자 수녀
8박9일 | 12월 1일~9일 | 40일 | 10월 14일~11월 22일

2026년 이탈리아 순례(작은형제회)

내용: 로마, 아시시 및 프란치스코 성지
문의: 010-9704-9495(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81차	3월 11일(수)~22일(주일)	회비: 545만원
82차	5월 26일(화)~6월 6일(토)	회비: 545만원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0월 17일~19일, 11월 7일~9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11월 22일(토)~23일(주일)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2026년 1월 14일(수)~23일(금)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칠악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1월 7일 10시~15시30분
성모님과 함께하는 무료가를 피정	10월 25일(토) 10시~16시
수험생을 위한 기도 피정	11월 13일(목)
가톨릭서간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11월 28일(금)~30일(주일)
요한묵시록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12월 10일(수)~13일(토)
송년 피정	12월 31일(수)~2026년 1월 1일(목) / 선착순 접수
노베나 기도 접수	11월 2일~10일 / 미사·위령기도 봉헌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그리스도의 레지오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특별 피정: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4박15일
문의: 010-5735-4578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0월 17일~20일·11월 14일~17일·12월 19일~22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제주 '푸른꿈 제주섬' 피정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섬, 순례(성지·자연, 말씀초대)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사목위원·구반장) 환영
때: 10월 30일~11월 1일·11월 11일~13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성모술숯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 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월 둘째주(금~주일) 2박3일 11월 7일~9일·12월 12일~14일·2026년 1월 9일~11일
경북 청도 기차역에서 무료 픽업 신청 가능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자연 피정

내용: 기도와 자연 속에서 주님과 머무는 시간
때: 10월 20일(월) 오전 9시 /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곳: 홍천성당(전대사 있음) / 회비: 5만원
입금 계좌: 국민은행 794001-04-122952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자연순례 11월 10일~13일·11월 27일~29일·12월 5일~7일·12월 13일~15일·12월 19일~21일·2026년 1월 10일~12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1월 15일~18일·12월 1일~3일, 연말연시 12월 31일~1월 3일(한라산·해남이·해돋이)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지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때: 위령성월 피정 11월 2일~4일, 제주순례 피정 10월 27일~29일·12월 6일~8일·12월 12일~14일·11월 22일~25일(추자도 성지순례),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2026년 1월 9일~11일·1월 15일~18일·1월 23일~25일·1월 30일~2월 1일·2월 6일~8일·2월 22일~24일·2월 27일~3월 1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남이·해돋이) 12월 31일~1월 3일
2026년 피정 접수 중 /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교육

고상·성모상·묵주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서강대학교 영성특강 '나의 신앙일지'

주제: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해서·성모님을 추앙하는 우리들 /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때: 10월 20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 무료 강의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문의: 02)705-4711

가톨릭성서모임 독서클럽

때: 10월부터 / 접수: biblemove.com
문의: 02)824-4363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52기 개강

때, 곳: 10월 20일(월) 19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교육청 학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한글반·영어기초 ABC 영어회화 / 문의: 02)727-2471

명동 전진상 강좌·살풀이 춤 배우기

살풀이 춤을 통한 내적치유
때, 곳: 11월 12(화)~12월 3일(수) 14시~16시, 명동(4회)
문의: 02)726-0700(www.jiscn.or.kr) 전진상 영성센터

거룩한 예수님 수의와 함께하는 마르코복음

때: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 회비 없음
곳: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문의(접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 문의: 010-6655-1165

때, 곳: 10월 28일~11월 11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회비: 15만원 /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타회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영성독서지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10-8477-6688

내용: 영적독서 과정(6주) /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때: 10월 16일부터 매주(목) 19시~21시 / 회비: 10만원
곳: 가톨릭회관 1층 회의실 /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주최: 한국가톨릭독서모임(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2026년 서강대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3차 모집

접수: 10월 13일(월)~24일(금) / 문의: 02)705-8678
전형일: 10월 25일(토) / 모집: 게임그래픽·웹툰만화애니메이션, 게임AI·개발, 메타버스엔터테이먼트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학점은행계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수능, 내신, 계열 관계없이 지원 가능
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 편입, 취업, 대학원 진학 가능 / 홈페이지: https://ssec.sogang.ac.kr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초보자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신앙과 인문학, 새로운 만남 II(한국CLC)

때: 10월 23일~11월 13일 매주(목) 19시30분(4강)
현장강의 또는 녹화강의 선택 / 청년 할인
곳: 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 문의: 02)2135-9398

1강(10월 23일)	걸어다니는 동학, 장일순	한상봉 편집장
2강(10월 30일)	세상을 구원하라(영화·약속)	민병훈 영화감독
3강(11월 6일)	유교를 만난 마태오 리치	이진현 신부
4강(11월 13일)	과학의 눈, 신앙의 빛	조동원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0월 20일(월)까지
전형일: 10월 25일(토) / 문의: 02)705-8668, 9

모집 전공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영성·철학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스테인드글라스 교육(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미나 음악원(주최 / 신촌·서초)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특별강좌
주제: 하나님의 뜻 식별-선택과 결정의 길잡이
권오면 신부 / 문의(접수): 02)3276-7799
때, 곳: 10월 17일·10월 24일·11월 14일·11월 28
일·12월 12일 오후 2시~4시, 예수회센터 103호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 대입준비, 멘토링지원·진로탐색,
자격증 취득(사진·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원어민 영
어회화·토론+글쓰기·작곡 등) / 댄스지도봉사자, 검정고
시·수능지도 봉사자 수시 모집 중(1365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모집

예수고난회 재속3회(동반자회) 8기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남녀 신자
모집: 9월 28일~12월 7일 / 문의: 010-7553-4672
담당자, 02)990-1004 우이동 명상의집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때: 11월 15일 14시 / 대상: 1980년 이후 출생자
홈페이지(<https://www.catholic-choir.or.kr>) 참조
문의: 010-3211-5195 (문자)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0월 16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10월 17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본원 성당(전철 3호선 지축역 10번)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월례 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10월 27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 미사 / 문의: 02)953-0613
주례: 남승원 신부 / 나눔: 이경자 선교사
때, 곳: 10월 18일(토) 16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누구나 참석

안내

가톨릭여성연합회 사랑의 바자회

때, 곳: 10월 19(주일) 10시~16시, 명동대성당 앞마당
문의: 02)778-7543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회수녀회)

중립동약현성당 2026년 4~12월 혼인예식 추천

때: 10월 19일 오후 2시 / 문의: 02)362-1891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100만원(카드 불가)
주의사항-2026년 1월~3월 혼인예식은 홈페이지
지 확인 후 선착순 예약받습니다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신문 로고·제호 디자인 공모전

주제: 가톨릭신문의 소명과 새로운 100년의 비전
을 담아낼 로고와 제호 디자인 / 문의(접수): 010-
9935-7671 가톨릭신문 창간100주년 준비위원회
기간: 10월 13일~12월 19일 / office.catholictimes.org
대상: 국내외 누구나, 개인 및 팀별 참가 가능
시상: 대상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상금 100만원

바로로팔 문화콘서트-명동대성당 도슨트 음악회

내용: 명동대성당의 역사와 건축, 미술작품에 대한
해설과 실내악 연주 / 출연: 양성식 & 에라토 앙상블
때, 곳: 10월 22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해설: 가톨릭미술해설사 / 접수: 바로로팔 인터
넷서점 사이트(무료, 선착순 사전 접수)
문의: 02)944-0829 (업무 시간), 010-7286-7724 (문자)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제12회 가톨릭영화제

때, 곳: 10월 23일(목)~26일(주일), CGV명동역 씨
네라이브러리 / 주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
상영작: 홈페이지(caff.kr) 참조 / 무료 입장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유관단체 알림

떼제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 문의: 02)744-0840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채워온 떼제
기도모임이 30주년을 맞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때, 곳: 매일 세번(제토) 10월 18일·11월 15일·12월 20일
15시45분~18시(주일 미사),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
20) 성당 / 대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어른·청소년·청년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어르신케어 요양 보호사 모집 / 문의: 010-7171-9503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
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청담동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 이메일 문의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사무행정·회
계, PC 및 기타 프로그램 사용에 수월하신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0월 19일(주일)까지 방문·우편(우 06073, 강남구
삼성로720 청담동성당) 및 이메일(gaveraf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제출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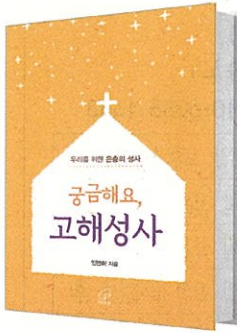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본사양식) 온라인 접수
접수: 본사 플랫폼(catholicbookplus.kr)-회사소개-
홈페이지(catholicbooks.kr)-채용정보 / 근무조건·세
부 사항은 부문별 상이하니 채용정보 반드시 확인

모집 분야	담당 업무
경영관리국	재무 회계, 인사기획 및 성과 관리
영업국	영업
물류지원팀	물류지원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호준 신부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수시	여의대방로65(영등포구 신길6동)	0507-1306-1505 / 카카오톡채널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살레시오회	수시	수도원(대림동)	010-6221-3520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0월 18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성심수녀회	수시 / 개인면담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5696-2331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0월 18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수시	가톨릭회관 516호	010-3068-0325 서울, 010-2969-5119 부산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궁금해요, 고해성사

인만희 지음
바오로말 | 176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고해성사를 미루게 되는 신자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따뜻하게 안내하는 이 책은, 하느님과 만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며, 고해성사는 의무가 아닌 은총의 통로임을 깊이 있게 전한다. 방법론적인 것을 세세히 설명하기보다는, 본질적인 것을 편안하게 풀어 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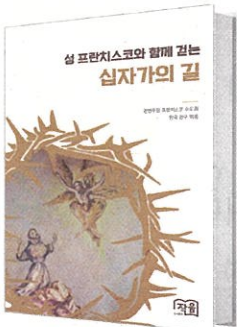


신간

성 이나시오가 안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의사 결정 하느님 뜻 식별

티모시 갤러허 지음
이나시오영성연구소 | 191쪽 | 2만원
문의: 02)3276-7799

티모시 갤러허 신부의 세 번째 저서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어진 인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른 보다 나은 길을 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따라 올 수 있도록 여러 인물들의 구체적인 식별 과정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는 영적 실용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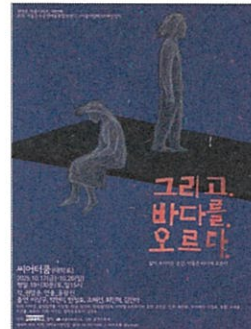


신간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곤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관구 엮음
도서출판 작음 | 56쪽 | 6천원
문의: 02)793-2070

이 책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리스도의 수난에 깊이 동참하며 살아간 삶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엮은 십자가의 길 기도서이다. 표지와 십자가의 길 각 처마다 수록된 그림은 류병창 수사님이 강화 성 유대첼 베드로 수도원 경당에 그린 벽화다.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 표현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이 우리에게 묵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극

그리고 바다를 오르다.

때, 곳: 10월 17일~26일 (평일) 19시30분, (토·주일) 15시, 씨어터 쿤(전철 4호선 혜화역 4번출구)
입장권: 전석 4만원 / 문의: 010-7238-8936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10명 50% 할인

그들은 바다를 오르고, 우리는 그 바다에서 삶의 의미를 묻는다. 연극 <그리고 바다를 오르다>는 권영중 작가의 3부작을 완성하는 철학적 호화로, 삶과 죽음, 그 경계에 선 이들의 만남을 통해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절벽 위에서 마주한 소년과 소녀, 아이를 잃은 부부의 이야기는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어 다가온다.



음악회

바오로말 문화콘서트 평화와 축복의 울림 파이프오르간

때, 곳: 10월 18일(토) 11시, 종로성당
신청: 바오로말 인터넷서점 사이트
문의: 02)944-0829(업무 시간), 010-7286-7724(문자) / 전석 무료(사전 신청, 선착순)

2025년 바오로말 문화콘서트 시리즈의 두 번째 음악회 <평화와 축복의 울림, 파이프오르간>이 10월 18일(토) 11시에 종로성당에서 열린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 형식으로, 최호영 신부가 해설과 연주에 참여하며 오르간 최주용, 오보에 임정희, 첼로 강효정이 출연한다. 파이프오르간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으며, 평화와 축복의 울림에 잠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소리극

서편제; The Original

때, 곳: 10월 17일~11월 9일 (평일) 19시30분, (토·주일) 14시(화요일·10월 22일 공연없음 / 11월 1일 14시·18시 2회 공연), 국립정동극장
입장권: 전석 7만원 / 문의: 1577-3363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그들은 소리로 삶을 견디고, 우리는 그 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소리극 <서편제; The Original>은 이청준 원작 소설의 본질에 집중한 창작극으로, 소리꾼의 삶과 한국인의 정서를 깊이 있게 담아낸 무대다. 소리 본연의 멋과 전통이 살아 있는 이 작품은, 우리 말과 소리,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다시 일깨워 준다.



제2시대문 · 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언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김 현 (안토니오)

주임신부 : 최장민 (도미니코)

부주임신부 : 백종원 (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 (스테파노)

안락화장 : 이법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성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 예비신자를 초대합니다.

- 첫모임 : 10월 26일(주일) 오전 10시 / 304호
- 추가모임 : 11월 19일(수) 까지
- 대상 : 예비신자, 외딴교우, 첫영성체준비자
- 교리시간 : 주일반 : 오전 9시~10시 / 304호
수요반 : 오후 7시~8시 / 304호

※ 예비신자 인도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10월 21일(화) 오전 10시

● 병자영성체

- 일시 :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출발
- ※ 병자영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 또는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 교우를 환영합니다 (9월~10월)

- 환영식 : 10월 26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허정련	실비아	2-2	김동희	베드로	2-3
이민엽	바실리오	3-3	김부성	마르코	5-1
여정금	엘리사벳	5-1	이창주	아론	8-5
신두철	토마스아퀴나스	9-1			

● 여성구반장 회합

- 일시 : 10월 12일(주일) 12시
- 장소 : 소성전

● 남성울프레이

- 일시 : 10월 19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프레이

- 일시 : 10월 21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성소후원회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8일(화)
- 장소 : 의정부교구 양주순교성지
- 회비 : 10,000원
- 신청 : 10월 31일(금)까지
- ※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으며, 후원회원 우선으로 신청받습니다.

● 초등부주일학교 교사 모집

- 밝고 사랑이 넘치는 초등부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 대상 : 관심 있는 청년/자모님 누구나
- 문의 : 허보은 미카엘라 교감 (010-8484-4374)



● 청년「이레밴드」단원 모집

- 모집파트 : 드럼 및 연주자 전 파트 (상시모집)
-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 문의 : 필립보네리 단장 (010-8276-0512)

● 오라떼(교중미사성가대) 단원 모집

- 대상 : 영세 교우
- 문의 : 히아친타 단장 (010-6788-1588)



● 2025년 4분기 전신자 영적도서 읽기

- 권장도서 : 1.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
2. 궁금해요 교해성사
- 신청기간 : 9월 28일(주일) ~ 10월 12일(주일)
- 신청접수 : 사무실

● 오늘은 국토방위에 힘을 다하고 있는 군일들을 위한 군인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9. 28)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14	754 (37.4%)	705 (35.0%)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감사헌금 (9월 22일 ~ 9월 28일)

전명숙	오만원	곽선모	오천원
임석훈	일십만원	박옥남	오만원
정수진	칠만원	서장원	삼만원
신동운	삼만원	김재균	오만원
익명	이십오만원	익명	삼십팔만원
익명	이십오만원	익명	일십구만칠천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6주일)

교무금	11,377,000원
주일헌금	5,849,000원

※ 9월 29일 ~ 10월 5일 기간 감사헌금과 연중 제27주일 (10/5) 우리들의 정성은 10월 19일 주보에 게재합니다.

입당	29	봉헌	510,512,210	성체	175,176,178	파견	31
----	----	----	-------------	----	-------------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